

영동 가로수길, 계절의 변화를 느끼다



▲감나무 가로수길 전경

연주향빛 풍요로움으로 특별한 가을 정취 감고 올 충북 영동군에 주홍빛 가을이 다가왔다.

영동군의 감나무 가로수는 가을을 알리는 명물로 아름다운 풍경과 운치로 정평이 나 있으며 현재 도심 곳곳이 주향빛 감빛으로 질게 물들었다. 지난 2000년 ‘전국 아름다운 거리 숲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영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이때때쯤이면 영동군의 주요도로,

시가지, 농촌마을 곳곳에 심어진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한 주홍빛이 더욱 도드라져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주렁주렁 열린 주향빛 감 아래를 오가며 영동만이 가진 특별한 재미와 낭만을 즐기고 있다.

영동의 감나무는 풍요로운 가을풍경을 더 돋보이게 하는 영동군의 상징이자 영동군민들의 자랑거리이다.

지난 1975년 읍내 시가지 30여km 구간에 심었던 2,800여 그루의 감나무는 점점 규모가 커져, 현재 164km 구간에 2만3,240본의 감나무 가로수가 조성돼 있다.

영동의 감나무는 영동군 전체를 뒤덮으며 전국에서 가장 긴 감나무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지역의 자량인 감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병해충 방제, 전정작업 등 수시로 생육상태 확인과 관리점검을 하며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감의 소중함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영동의 명물 감나무 가로수를 홍보하고자 용두공원 도로변에서 ‘감따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3시 진행되는 감따기 행사 종료 후부터 도로변 가로수는 지정된 관리자 등이 자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나무 가로수 길은 특별한 가을 정취를 전하며 감고를 영동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며 “감나무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으로 감을 채취할 시 법적인 제재가 따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은 감고를 고장의 명성을 잇고 감나무 육성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0년 영동을 부용리에 감나무가로수 유래비를 건립했고 2004년에는 ‘영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무단 채취 지도단속반 편성 및 가로수 관리자 지정을 통해 체계적 보호 관리를 하고 있다.

/이국 기자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자원봉사자·단체장 교육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는 20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민장에서 자원봉사 단체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단체장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3년도 센터 주요 사업 소개, 봉사자 인센티브, 자원봉사 종합보험 등 봉사자 관련 제도 안내와 다양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와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 ‘행복 미루지 마세요’”란 주제로 법학 박사이며 동국대학교 겸임 교수인 강원식 시인의 특강이 이어

졌다. 시를 낭독하고 글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며 3년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낸 봉사자의 노고와 엔데믹에 접어들어 다시 활발해지는 봉사 참여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제 이사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행사 및 재난 현장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회 곳곳에 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어 행복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성진 기자

당진장고항 국제평화문화예술제, 전통문화축제 ‘발돋움’

지난 14일, 장고항 마섬서 열려

‘새천년 세계로 열려 있는 생명의 귀향지, 당진 장고항, 생명 조화의 사랑, 자유 평화를 세계로 보내는 문화예술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제4회 당진장고항 국제평화문화예술제’가 지난 14일 당진시 장고항 마섬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고항 주민 예능 동호인 공연과 위령 의식으로 뉘 건집(김정 국악인), 진혼 북 다스림(디딤소리연 주단, 해강 외 4인), 살풀이(김정 국악인), 고풍이(고마예술단) 등이 무



대와 바다에서 열려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현대 문화예술에 익숙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잊

혀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이 무대 위에서 펼쳐져 눈길을 모았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기용 사무국장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축제와 예술제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획·진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무대위에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고 “올해 4회째까지 진행된 당진장고항 국제평화문화예술제에 말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켜 당진시의 자랑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와 더불어 또 다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 바란다”고 했다.

/가금현 기자



▲ 제104회 전국체전 씨름 경장급 손희찬 선수 우승사진

증평군, 손희찬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경장급 정상

금메달 획득

손희찬(증평군청)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장급(75kg 이하) 정상에 올랐다.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한 증평군 소속 손희찬은 18일 전남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일반부 경장급 1위 결정전(3전 2승제)에서 유환철(인천광역시청)을 2-1로 꺾고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승결승전에서 오준영(경기도 광주시청)에게 2-0으로 승리해 결승에 합류한 손희찬은 유환철과 결승 첫판에서 발다리되치기 기술을 성공해 기선을 제압했다.

둘째판에서 시도한 발다리 기술이 실패해 상대에게 한 점 내주며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줬으나 마지막판에서는 안다리걸기 기술로 상대를 쓰러뜨려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훈훈한 외모로 씨름돌로 불리는 손희찬은 지난 4월 2023년 증평인삼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 이후 약 6개월만에 다시 한번 경장급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며 외모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선수임을 입증했다.

손희찬 선수는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증평군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에 우승의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종 기자

이철우 도지사, 美 항공·방산산업 심장부 델리스서 세일즈 외교 이어가

아메리칸 항공 방문, 대구경북신공항 소개 및 미주 노선 의견 교환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록히드마틴, 벨 헬리콥터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경제사절단 일행은 이번 일정의 마지막으로 현지시간 17일 텍사스 주 델리스 지역의 항공·방산 기업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지사는 신공항 추진 및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 사항을 소개하고 경북 소재 방산기업과 협력 방안과 산불, 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에 대응한 최첨단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아메리칸 항공(AA·American Airlines) 본사를 방문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사항을 소개하면서 미주 직항 노선 개설, 동경·상해·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LA·뉴욕·토론토 등 한인 인구가 밀집된 북미지역 주요 도시 간 경유 노선



연계 방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세계 최초 민간용 헬기를 개발한 미국 3대 헬리콥터 기업인 벨 헬리콥터(Bell Helicopter)를 방문해 최신 소방 및 긴급 대응용 헬기 개발 현

황을 청취했다.

특히, 벨은 최근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이철우 지사는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풍산 등 도내 주요 대기업과 구미 방산

/이국 기자

청양군, 영유아 발달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이 군내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기초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로 확대한다.

20일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

DST)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비용을 지원, 조기 치료와 재활로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군민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과 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영유아

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단, 소득 초과자는 검진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발달장애 정밀 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정밀 검사 후 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보

건의료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940-4534)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운동, 언어, 사회성, 인지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공주시, 5도2촌 문화체험여행 ‘호평’

인근 지자체에서 가족 단위 240여명 참여, 생활인구 유치 주력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5도2촌 공주 문화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5도2촌 문화체험여행’은 세종 등 인근 도시민을 대상으로 공주시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체험 연계코스를 소개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향후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5도2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 물놀이 테마 2

회, 가을 대백제전 테마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세종시 초·중·고생 가족 단위 240여명이 참여했다.

여름 물놀이 테마 참여자의 호평과 입소문 덕에 가을 테마 모집에는 접수 이틀 만에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영호 지역활력과장은 “내년에도 문화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찾는 공주시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연근 기자